

#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4년 11월

## 신심 미사 하느님 섭리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0-14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11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13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4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분의 진노가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31(130),1.2.3(◎ 57 [56] ,2나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제 영혼이 당신께 숨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 복음 환호송

요한 2,1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의 어머니도 갈릴래아 카나의 혼인 잔치에 계셨네.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 잔치에 계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

그때에 <sup>1</sup>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sup>2</sup>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sup>3</sup>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sup>4</sup>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sup>5</sup>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sup>6</sup>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들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sup>7</sup>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sup>8</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펴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sup>9</sup>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펴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sup>10</sup>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sup>11</sup>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1일 토요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제1독서**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2-4,9-14

나 요한은 <sup>2</sup>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sup>3</sup>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sup>4</sup>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sup>9</sup> 그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sup>10</sup>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sup>11</sup>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sup>12</sup>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sup>13</sup> 그때에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겹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sup>14</sup>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4(23),1-2,3-4,7-5-6(◎ 6 참조)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3,1-3

사랑하는 여러분, <sup>1</sup>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sup>2</sup>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3</sup>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ㄴ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sup>2</sup>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 <sup>3</sup>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sup>4</sup>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sup>5</sup>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sup>6</sup>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 <sup>7</sup>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sup>8</sup>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sup>9</sup>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  
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2일 주일 위령의 날

## 첫째 미사

**제1독서**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 욥기의 말씀입니다.

19.1.23-27ㄴ

1 욥이 말을 받았다.

23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25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26 내 살갓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27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7(26),1.4.7과 8ㄴ과 9ㄱ.13-14(◎ 1ㄱ 또는 13)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또는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5-11

형제 여러분, 5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sup>8</sup>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sup>9</sup>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sup>10</sup>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sup>11</sup>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마태 25,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나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sup>2</sup>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sup>3</sup>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sup>4</sup>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sup>5</sup> 행복하여라, 은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sup>6</sup>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sup>7</sup>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sup>8</sup>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sup>9</sup>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sup>10</sup>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sup>11</sup>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sup>12</sup>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둘째 미사

**제1독서**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또는 3,1-6.9)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sup>2</sup>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sup>3</sup>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과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sup>7</sup>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sup>8</sup>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4-115),5-6.10-11.15와 16가나르(◎ 9)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제2독서** <최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7-21

형제 여러분, <sup>17</sup>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sup>18</sup>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sup>19</sup>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sup>20</sup>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sup>21</sup>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sup>25</sup>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sup>26</sup>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sup>27</sup>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sup>28</sup>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sup>29</sup>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sup>30</sup>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셋째 미사

**제1독서**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4,7-15

<sup>7</sup>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sup>8</sup>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sup>9</sup>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sup>10</sup>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sup>11</sup>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다. <sup>12</sup>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sup>13</sup>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sup>14</sup> 주님께서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sup>15</sup>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4.5.6(◎ 1 또는 4가나디)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6,3-9<또는 6,3-4,8-9>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형제 여러분, <sup>3</sup>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sup>4</sup>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sup>5</sup>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sup>6</sup>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sup>7</sup>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sup>8</sup>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sup>9</sup>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3,2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 ◎ 알렐루야.

**복 음**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sup>1</sup>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sup>2</sup>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sup>3</sup>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sup>4</sup>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sup>5</sup>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sup>6</sup>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sup>7</sup>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sup>8</sup>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sup>12</sup>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3일

## 연중 제31주간 월요일

**제1독서**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4

형제 여러분, <sup>1</sup>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sup>2</sup>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sup>3</sup>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sup>4</sup>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1(130),1,2,3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떴던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복음 환호송**

요한 8,31-3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네 친구를 부르지 말고,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여라.>

※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4,12-14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sup>12</sup>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sup>13</sup>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 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sup>14</sup>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4일 화요일

##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5-11

형제 여러분, <sup>5</sup>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sup>6</sup>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sup>7</sup>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sup>8</sup>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sup>9</sup>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sup>10</sup>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sup>11</sup>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30ㄱ,31-32(◎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음이로다. 민족들의 지배자이심이로다.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리라. ◎
-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로다. ◎

### 복음 환호송

마태 11,2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4

그때에 <sup>15</sup>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6</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sup>17</sup>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sup>18</sup>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sup>19</sup>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sup>20</sup>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어요.’ 하였다.

<sup>21</sup>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sup>22</sup>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시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sup>23</sup>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sup>24</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5일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제1독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2-18

<sup>12</sup>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sup>13</sup>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sup>14</sup>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sup>15</sup>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sup>16</sup>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up>17</sup>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면 하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sup>18</sup>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7(26),1.4.13-14(◎ 1ㄱ)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sup>25</sup>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sup>26</sup>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sup>27</sup>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sup>28</sup>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sup>29</sup>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sup>30</sup>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sup>31</sup>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sup>32</sup>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sup>33</sup>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6일

##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제1독서**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3-8ㄱ

형제 여러분, <sup>3</sup>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sup>4</sup>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sup>5</sup>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sup>6</sup>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sup>7</sup>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sup>8</sup>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05(104),2-3.4-5.6-7(◎ 3ㄴ)

- ◎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사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
-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
-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

### 복음 환호송

마태 11,2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10

그때에 <sup>1</sup>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sup>2</sup>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sup>3</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4</sup>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sup>5</sup>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sup>6</sup>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

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sup>7</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  
혼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sup>8</sup>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sup>9</sup>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sup>10</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7일

##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제1독서** <우리는 구세주를 고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

<sup>17</sup>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  
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sup>18</sup>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sup>19</sup>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  
합니다.

<sup>20</sup>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sup>21</sup>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  
실 것입니다.

<sup>4,1</sup>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  
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2(121),1-2.3-4 가. 4ㄷ르-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
-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복음 환호송**

1요한 2,5 참조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8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sup>2</sup>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sup>3</sup>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sup>4</sup>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sup>5</sup>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sup>6</sup>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열린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7</sup>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8</sup>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8일  
연중 제31주간 토요일

**제1독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0-19

형제 여러분, <sup>10</sup>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 번 보여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sup>11</sup>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sup>12</sup>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sup>13</sup>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sup>14</sup>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sup>15</sup>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sup>16</sup>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sup>17</sup>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sup>18</sup>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 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sup>19</sup>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 1-2, 5-6, 8-9(◎ 1-)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울곤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9ㄴ-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11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13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드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1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9일 주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제1독서**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구원되리라(따름 노래 “성전 오른편에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7,1-2.8-9.12

그 무렵 천사가 <sup>1</sup>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sup>2</sup>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sup>8</sup>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sup>9</sup>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sup>12</sup> 이 강이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썩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46(45),2-3.5-6.8-9(◎ 5)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제2독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9c-11.16-17

형제 여러분, <sup>9</sup>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sup>10</sup>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sup>11</sup>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sup>16</sup>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sup>17</sup>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2역대 7,1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22

<sup>13</sup>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sup>14</sup>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sup>15</sup>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sup>16</sup>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sup>17</sup>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sup>18</sup>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sup>19</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sup>20</sup>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쳐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sup>21</sup>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10일 월요일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제1독서**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원로들을 임명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시작입니다. 1,1-9

1 나 바오로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sup>2</sup>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4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5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sup>6</sup>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험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sup>8</sup>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sup>9</sup>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4(23),1-2,3-4,7,5-6(◎ 6 참조)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복음 환호송**

필리 2.15.16 참조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6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sup>2</sup>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sup>3</sup>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sup>4</sup>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sup>5</sup>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6</sup>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제1독서** <우리는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8.11-14

- 사랑하는 그대여, <sup>1</sup>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 <sup>2</sup>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 <sup>3</sup>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sup>4</sup>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sup>5</sup>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sup>6</sup>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sup>7</sup>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sup>8</sup>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 <sup>11</sup>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sup>12</sup>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 <sup>13</sup>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sup>14</sup>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37(36),3-4.18과 23.27과 29(◎ 39ㄱ)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 ◎
- 주님이 흠 없는 이들의 삶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주님은 사람의 발걸음 지켜 주시며,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
-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 하리라. 거기에서 길이 살아가리라. ◎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7,7-10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2일 수요일

##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졌으나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3,1-7

사랑하는 그대여, 1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2 남을 증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은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3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5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6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7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3(22),1-3 7.3나-다-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복음 환호송

1테살 5,18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떨쩍이 서서 <sup>13</sup>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sup>16</sup>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sup>18</sup>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sup>19</sup>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제1독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7-20

사랑하는 그대여, <sup>7</sup>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sup>8</sup>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sup>9</sup>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sup>10</sup>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sup>11</sup>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sup>12</sup>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sup>13</sup>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sup>14</sup>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5</sup>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sup>16</sup>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sup>17</sup>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sup>18</sup>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sup>19</sup>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sup>20</sup>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5ㄱ)

- ◎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복음 환호송

요한 15,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0-25

그때에 <sup>20</sup>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sup>21</sup>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sup>22</sup>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sup>23</sup>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sup>24</sup>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sup>25</sup>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4일

## 연중 제32주간 금요일

### 제1독서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4-9

선택받은 부인이여, <sup>4</sup>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5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8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9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19(118),1.2.10.11.17.18(◎ 1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 계명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
- 행여 당신께 죄를 지을세라, 마음 깊이 당신 말씀 간직하나이다.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
-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복음 환호송

루카 21,28 참조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알렐루야.

### 복 음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6-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6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

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sup>28</sup>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sup>29</sup>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sup>30</sup>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sup>31</sup>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sup>32</sup>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sup>33</sup>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sup>34</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sup>35</sup>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sup>(36)</sup>

<sup>37</sup>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5일

##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제1독서** <우리가 형제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됩니다.>

▮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5-8

사랑하는 가이오스, <sup>5</sup>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sup>6</sup>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맞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sup>7</sup>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sup>8</sup>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 1ㄴ-ㄷ-2.3-4.5-6(◎ 1ㄴ)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울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부귀영화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의로움 길이 이어지리라. 울곤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복음 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 알렐루야.
-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으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2</sup>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sup>3</sup>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sup>4</sup>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sup>5</sup>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sup>6</sup>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sup>7</sup>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sup>8</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6일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제1독서**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31,10-13.19-20.30-31

10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11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12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13 양모와 아미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잣는다. 20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30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31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는 않을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

1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또는 25,14-15,19-21>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어 얇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sup>26</sup>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sup>27</sup>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sup>28</sup>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sup>29</sup>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sup>30</sup>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7일 월요일

##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제1독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여라.>

▮ 요한 묵시록의 시작입니다.

1,1-4,5나; 2,1-5나

<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 주신 계시입니다. <sup>2</sup>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sup>3</sup>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sup>4</sup>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sup>5</sup>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sup>2.1</sup>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sup>2</sup>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sup>3</sup>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sup>4</sup>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sup>5</sup>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

을 다시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1-2,3,4와 6(◎ 묵시 2,7ㄴ 참조)

- ◎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8,35-43

<sup>35</sup>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 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sup>36</sup>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sup>37</sup>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 주자, <sup>38</sup>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sup>39</sup>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sup>40</sup>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sup>41</sup>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sup>42</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sup>43</sup>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8일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제1독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3,1-6,14-22

나 요한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2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 있지만 죽어 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4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이가 말한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18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19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 하고 회개하여라.

20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

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5(14),2-3,7,3나,4-4나,5(◎ 묵시 3,21 참조)

- ◎ 승리하는 사람은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 복음 환호송

1요한 4,10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 알렐루야.

## 복 음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10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sup>2</sup>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sup>3</sup>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sup>4</sup>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들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sup>5</sup>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sup>6</sup>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sup>7</sup>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sup>8</sup>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sup>9</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sup>10</sup>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제1독서**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4,1-11

나 요한이 <sup>1</sup>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sup>2</sup>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sup>3</sup>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 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sup>4</sup>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스물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sup>5</sup>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sup>6</sup> 또 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sup>7</sup>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sup>8</sup>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sup>9</sup>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sup>10</sup> 스물네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sup>11</sup>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0,1ㄴㄷ-2,3-4,5-6ㄱ(◎ 묵시 4,8ㄷ)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 거룩한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웅대한 창공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위대한 일 이루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크시오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 뿔 나팔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비파 타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 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거문고 뜯고 피리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
- 바라 소리 낭랑하게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라 소리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

###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1~28

그때에 <sup>11</sup> 예수님께서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up>12</sup>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 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sup>13</sup>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렸다. <sup>14</sup>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sup>15</sup>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sup>16</sup>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7</sup>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렸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sup>18</sup> 그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9</sup> 주인은 그에게도 일렸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sup>20</sup>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

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sup>21</sup>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sup>22</sup>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sup>23</sup>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니?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sup>24</sup>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sup>25</sup> —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이는 열 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

<sup>26</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sup>27</sup>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sup>28</sup>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0일

##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제1독서** <어린양은 살해되시고, 자신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5,1-10

나 요한은 <sup>1</sup>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sup>2</sup>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sup>3</sup>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sup>4</sup>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sup>5</sup>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

게 되었다.”

<sup>6</sup> 나는 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sup>7</sup> 그 어린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sup>8</sup>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스물네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sup>9</sup>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sup>10</sup>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49,1-2-3-4.5-6과 9- (◎ 묵시 5,10 참조)

- ◎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
-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
-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

### 복음 환호송

시편 95(94),7.8

- ◎ 알렐루야.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알렐루야.

### 복 음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41-44

그때에 <sup>41</sup>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sup>42</sup>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sup>43</sup>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들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sup>44</sup>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21일 금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제1독서** 〈딸 시온아, 즐거워하여라. 내가 이제 가서 머무르리라.〉

▣ 즈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14-17

<sup>14</sup>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sup>15</sup>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에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sup>16</sup>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sup>17</sup>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루카 1.46-47.48-49.50-51.52-53.54-55

- ◎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는 복되시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네. ◎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 복음 환호송

루카 11,28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6-50

그때에 <sup>46</sup>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sup>47</sup>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48</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sup>49</sup>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sup>50</sup>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2일 토요일

##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그 두 예언자는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1,4-12

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의 두 증인이 있다.” <sup>4</sup>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sup>5</sup>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sup>6</sup>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up>7</sup>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sup>8</sup> 그들의 주검은 그 큰 도성의 한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sup>9</sup>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주검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0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 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 습니다.

12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44(143),1.2.9-10(◎ 1~)

-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에 싸움을, 내 손에 전쟁 을 가르치셨네. ◎
-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채,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 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
-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오리다.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오 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중 다윗을 구하시나이다. ◎

###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 여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27-40

그때에 <sup>27</sup>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 었다. <sup>28</sup>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 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sup>29</sup>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 었습니다. <sup>30</sup> 그래서 둘째가, <sup>31</sup>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sup>32</sup>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sup>33</sup>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sup>34</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sup>35</sup>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sup>36</sup>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sup>37</sup>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sup>38</sup>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sup>39</sup>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sup>40</sup>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3일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제1독서** <너희 나의 양 떼야, 나 이제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4,11-12,15-17

11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피 주겠다. <sup>12</sup>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15 내가 목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목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6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

17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2,2,2-3,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6,28

형제 여러분, <sup>20</sup>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sup>21</sup>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

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sup>22</sup>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sup>23</sup>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sup>24</sup> 그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sup>25</sup>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sup>26</sup>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sup>28</sup>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31</sup>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sup>32</sup>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sup>33</sup>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sup>34</sup> 그때에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 하여라. <sup>35</sup>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sup>36</sup>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sup>37</sup>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sup>38</sup>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sup>39</sup>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였습니까?’

<sup>40</sup>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sup>41</sup>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sup>42</sup>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sup>43</sup>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sup>44</sup>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sup>45</sup>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sup>46</sup>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제1독서** <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4-5

나 요한이 <sup>1</sup>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sup>2</sup>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sup>3</sup> 그들은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십사만 사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sup>4</sup>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sup>5</sup> 그들의 입에서는 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4(23),1-2.3-4ㄱ.5-6(◎ 6 참조)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빈곤한 과부가 렵톤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sup>2</sup>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렵톤 두 닢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sup>3</sup>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sup>4</sup>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5일

## 연중 제34주간 화요일

**제1독서**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4-19

나 요한이 <sup>14</sup>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낮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16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낮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낮을 들고 있었습니다.

18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낮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낮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19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낮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들이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 화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96(95),10.11-12.13(◎ 13나 참조)

- ◎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복음 환호송

묵시 2,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5-11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sup>11</sup>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6일

##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제1독서** <그들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5,1-4

나 요한은 <sup>1</sup>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sup>2</sup>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sup>3</sup>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sup>4</sup>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8(97),1,2-3ㄱ,7-8,9(◎ 묵시 15,3ㄴㄷ 참조)

◎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당신이 하신 일 크고도 놀랍사옵니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

- 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뻑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 복음 환호송

묵시 2,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1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7일

##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제1독서**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8,1-2.21-23; 19,1-3.9-11

나 요한은 <sup>1</sup>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sup>2</sup>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 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sup>21</sup>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sup>22</sup>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sup>23</sup>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sup>19.1</sup>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sup>2</sup> 과연 그분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sup>3</sup>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sup>9</sup>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00(99),1-2.3.4.5(◎ 묵시 19,9ㄴ)

- ◎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복음 환호송**

루카 21,28 참조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0-2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21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22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23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24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사람들이 볼 것이다. 28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8일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제1독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0,1-4.11-21,2

나 요한은 1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sup>2</sup>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sup>3</sup>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sup>4</sup> 나는 또 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sup>11</sup> 나는 또 크고 흰 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sup>12</sup>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sup>13</sup>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sup>14</sup>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 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sup>15</sup>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sup>21.1</sup>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sup>2</sup>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84(83), 3.4.5와 6과 8기(◎ 묵시 21, 3나 참조)

- ◎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
-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
-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시다,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리이다. ◎

## 복음 환호송

루카 21,28 참조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9-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sup>29</sup>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sup>30</sup>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sup>31</sup>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sup>32</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sup>33</sup>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29일

##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제1독서**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2,1-7

주님의 천사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 요한에게 <sup>1</sup>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에서 나와, <sup>2</sup>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sup>3</sup>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sup>4</sup>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sup>5</sup>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sup>6</sup>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sup>7</sup>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95(94),1-2,3-5,6-7ㄱㄴㄷ(◎ 1코린 16,22ㄴ과 묵시 22,20ㄷ)

- ◎ 마라나 타! 오소서, 주 예수님!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임금님. 땅속 깊은 곳도 그분 손안에. 높은 산봉우리도 그분 것이네. 바다도 그분 것, 몸소 만드셨네. 마른땅도 당신 손수 빚으셨네.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복음 환호송

루카 21,36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4-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34</sup>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sup>35</sup>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sup>36</sup>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

**제1독서** <아,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3,16ㄹ-17.19ㄹㄹ; 64,2ㄴ-7

16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7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19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64.2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3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4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5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6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0(79),2ㄱㄹ과 3ㄴㄹ.15-16.18-19(◎ 4)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2독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3-9

형제 여러분, <sup>3</sup>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sup>4</sup>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up>5</sup>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sup>6</sup>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sup>7</sup>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up>8</sup>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sup>9</sup>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33</sup>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sup>34</sup>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sup>35</sup>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sup>36</sup>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sup>37</sup>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